

<2022년 1월 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는 삼위와 간절한 대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간절한 대화를 하면, 대답하신다. 그 대답이 말씀이 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 속에 나온 말이 말씀이 되어 선포된다.
3. 기도의 축복은 대화의 축복이다. 곧, 말씀의 축복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목적과 뜻을 두고 섭리사와 시대 전체에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오직 시대 보낸 자만이 받아서 전해 준다.
5. 하나님과 말씀은 절대 일체다. 고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6.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온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 된 자요, 하나님과 일체 된 자다.
7.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고, 하나님과만 일체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오직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일체 된다.
8. 하나님이 2022년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를 주신 것은

“올해도 나와 같이 대화하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겠다.” 하신 뜻이다. 이는 최고 축복의 말씀이다.

9. 주는 이 땅에 말씀의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시대 보낸 자도 알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성약 천 년 혼인 잔치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도 알게 된다.

10. 말씀은 전쟁터의 무기와 같다. 말씀의 무기가 없으면, 사탄이 쳐들어왔을 때 당한다.

11. 말씀은 길과 같다. 말씀이 끊어지면, 갈 길을 잃어버린다.

12. 말씀은 음식과 같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바로 넘어진다.

13. 말씀은 권세다. 말씀의 권세가 없으면, 빛을 잃는다.